

경제

현대·기아차 '글로벌 전략' 해외공장 증설 추진

노조 "해외생산 50% 넘지말라" 논란

임·단협안 검토... 기아 노조 수용땀 노사 갈등 우려

현대·기아차가 글로벌 전략으로 해외공장 증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고용 안정을 이유로 이를 제한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기아차 노조는 21일 고용 안정을 위해 해외생산 비중을 50% 이내로 제한하는 임·단협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노조는 "현대차는 국내공장보다 해외공장에서 더 많이 생산·판매하고 있고, 기아차도 기하급수적으로 해외공장 생산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국내공장의 공동화 현상과 해외공장으로 인한 고용 불안을 해소하

기 위해 국내공장도 해외공장의 생산 비율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대·기아차 노조의 상급단체인 금속노조는 이 제도 도입을 중앙교섭 요구안으로 확정할 상태다.

기아차 노조는 다음달 12일 대의원 대회를 열어 이를 받아들일 방침이다. 기아차 노조 관계자는 "기아차도 내년이면 해외공장에서 생산되는 차가 더 많아지는 것으로 안다"며 "다음달 9~10일 노조 수련회에서 생산 비율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뒤 12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확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도요타 사태에서 보듯 해외 생산이 늘어나면 품질 저하가 우려되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기아차가 국내경제나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해외생산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대·기아차 노조가 금속노조의 지침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해외생산 능력 확충을 추진하는 사측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생산은 현지 국가의 관세장벽가 더 많아지는 것으로 안다"며 "다음달 9~10일 노조 수련회에서 생산 비율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뒤 12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확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 국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진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자동차 회사들의 해외생산과 관련한 통제·협의를 만들어야 한다"며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글로벌 전략위원회' 같은 기구의 운영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해 국내 공장 판매량이 161만대, 해외공장 판매량이 149만대로 해외공장 비중이 48.1%를 차지했다. 올해는 50.8%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차도 올해 미국 조지아 공장 가동으로 해외생산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 측은 국내 생산이 가능한 물량까지 해외 공장으로 이전되면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기아 협력사 대표자 세미나

기아자동차는 지난 19일 경기도 화성시 롤링힐스에서 '2010 서비스 협력사 대표자 세미나'를 열고 고객 최우선 경영의 실천을 결의했다. 이날 전국의 서비스 협력사 대표 800여명은 일하는 장소에 찾아가 차량을 점검해주는 '찾아가는 비포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하고 22일부터 차량정비 점검, 차량내부 살균탈취 및 스크래치 제거에 오일체크를 추가하기로 했다. (기아지재팀)

기아자동차는 지난 19일 경기도 화성시 롤링힐스에서 '2010 서비스 협력사 대표자 세미나'를 열고 고객 최우선 경영의 실천을 결의했다. 이날 전국의 서비스 협력사 대표 800여명은 일하는 장소에 찾아가 차량을 점검해주는 '찾아가는 비포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하고 22일부터 차량정비 점검, 차량내부 살균탈취 및 스크래치 제거에 오일체크를 추가하기로 했다. (기아지재팀)

기아, 슬로바키아법인 1억유로 투자

질리나 공장 위치에 제2공장 건설... 엔진 생산 45만개로 늘려

기아차 슬로바키아법인은 1억유로(1천500여억원)를 투자해 현재 질리나 공장 자리에 제2엔진공장을 건설한다.

기아차 슬로바키아 법인 관계자는 18일 "현재 30만개인 엔진 생산능력을 45만개로 확대하기 위해 제2엔진

공장을 현재 질리나 공장 옆에 건설한다"고 밝혔다.

그는 "엔진 공장 증설은 지난해 9월 준공한 체코 노소비체 현대차 공장 이후 총 누적과 더불어 유럽 내 생산능력 확대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제2엔진공장은 오는 4월부터 공사

가 시작돼 내년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10억 유로를 투자해 2006년 12월 양산을 시작한 기아차 슬로바키아 공장에는 지난해 씨드와 스포티지 등 승용차 20만대와 엔진 24만개를 생산했다. (연합뉴스)

로체 후속 모델 'K5' 사양 공개

급제동 경시시스템 등 첨단장비 장착



기아차는 오는 5월 출시하는 중형 신차 TP(프로젝트P·사진)의 차명을 'K5'로 확정하고 사양과 실내 이미지를 21일 공개했다. 로체 후속 모델인 K5는 준대형 K7에 이어 두 번째로 앞패널과 숫자를 조합한 차명이다. 앞패널 K는 기아(Kia), 대한민국 (Korea), 그리스어 'Kratos(강함·지배·통치)', 영어 'Kinetic(활동적)'에서 따온 것이고, 5는 중형 차급을 의미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시판 차량에는 항균기능 및 원격의선 방향 효과를 내는 '바이오케어 온열시트', 운전대를 급속히 데워주는 '온열 스티어링 휠', 전동식 팬으로 실내공기를 순환시키는 '송풍 타입 풍동시트' 등이 장착됐다. 급제동 경보시스템(ESS)을 비롯해 타이어 공기압 경보시스템(TPMS), 진폭 감응형 램프(ASD), 전동식 속도 감응형 파워스티어링 휠, 액티브 에코 시스템 등으로 승차감과 연비도 개선됐다. 이밖에 ▲4등식 프로젝션 방식 HID 헤드램프 ▲LED 포지셔닝 램프 ▲결빙 타입 아웃사이드 미러 ▲3피드 타입 파노라마 선루프 등도 적용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기아 러시아서 '최우수 판매상'

기아자동차가 러시아에서 지난해 한해동안 가장 우수한 판매 실적을 기록한 자동차 업체로 뽑혔다.

기아자동차 러시아 법인은 최근 영국 국제 아담 스미스 협회가 주관하는 러시아 자동차 포럼에서 '2009년 최우수 판매상'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 포럼은 러시아 정부 관리들이 자국의 자동차 정책을 설명하고 주요 자동차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이 모여 자동차 산업 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모임으로 매년 완성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5개 부문에 걸쳐 상을 수여하고 있다. 기아차는 러시아 연간 판매 대수 순위가 2008년 11위에서 지난해 5위로 뛰어올랐고, 시장점유율 역시 2008년 3.0%에서 지난해 말 현재 4.8%로 높아졌다. (연합뉴스)

광주 무역수지 '흑자행진'

전남 10개월째 적자

광주의 무역수지 흑자기조와 달리 전남은 10개월째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2010년 2월 수출입 및 무역수지 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은 지난해 1월 적자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오던 수출이 전월보다 18.7% 감소한 6억5천100만달러, 수입은 12.5% 감소한 3억2천500만달러를 기록, 3억2천600만달러의 무역 흑자를 달성했다.

품목별 수출은 수송장비(-40.7%), 가죽·고무 및 신발류(-26.1%), 기계류와 정밀기기(-19.1%), 반도체(-4.8%), 가전제품(-0.7%) 등은 전체적

으로 감소했다.

반면, 전남지역은 수출이 전월보다 2.6% 증가한 22억8천600만달러, 수입은 전월보다 15.8% 감소한 24억2천600만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 1억4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4월 11억 흑자를 정점으로 5월 110억 달락 적자를 기록한 이래 10개월째 적자 행진이다. 주요 수입재인 원유, 석유·화학 제품 등의 가격이 크게 상승한 데다 수입물량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월 품목별 수출은 철강제품(-4.2%), 석유제품(-2.6%), 기계·정밀기기(-0.5%) 등이 감소했으나 전자제품(31.7%), 수송장비(19.4%)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Item and Value. Includes 코스피지수 (1,686.11), 코스닥지수 (527.58), 금리 (3.79%), 원·달러 환율 (1,132.70원).

Table with 2 columns: 당첨번호 and 당첨금(원). Lists various numbers and their corresponding amounts.

매입임대아파트 피해 전세입주자

전국 연합회 결성 집단 대응 나서

문수대하·팰리스 등 주축

매입 임대아파트 사업자들의 잇단 부도와 잠적으로 피해를 입은 전세입주자들이 집단 대응에 나섰다.

문수대하주택전세입주 피해자들의 모임은 21일 오후 광주시 북구 문흥동 청소년수련관에서 광주지역 매입임대 사업자인 팰리스와 문수대하주택 전세입주자들을 중심으로 '전국 매입 임대 피해자 연합회'를 결성했

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매입 임대 피해 구제 특별법 제정 등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매입 임대 피해는 지난해 9월 팰리스와 올해 초 문수대하주택 대표가 잠적하면서 광주지역에서만 1천600가구에 달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남 함안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통시장 안전시설 350억 투입

중기청, 전기·가스 등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의 안전시설을 개선하는데 350억원을 투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천550개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점검에서 시설의 노후화로 화재발생 위험이 있는 곳이 852개에 달하는 것

로 조사됐다.

중기청은 우선 전기(6곳) 및 가스(792곳) 관련 항목에서 E등급(위험) 판정을 받은 시장에 대해 150억원을 들여 안전시설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부터 200억원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자금을 활용해 다른 시장으로 시설개선 사업을 확대해 계획이다. (연합뉴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삼일부동산' featuring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상무랜드공인중개사' with a table of property listings including location, area, and price.

Recruitment advertisement for '(유)코리아랜드' with a table listing job positions, requirements, and benefit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부동산경매전문회사 에셋코리아' with a table of auction listings and contact information.